

오차대에서의 추억-1 년간의 교환학생을 마치며-

숙명여자대학교

서혜란

저의 교환학생 목표는 '일본 사회학 공부' 및 '일본의 대학문화 체험'이었습니다. 1 년간 오차대에서 유학하며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어 기쁩니다.

저는 문교육학부 인간사회과학과 사회학코스에 소속돼 공부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미디어학이라는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, 일본 사회학을 공부할 때 기초 과목부터 역사, 복지, 가족사회학, 어린이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학 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. 이외에도 유학생 수업을 매 학기 두세 개 정도 들었습니다. 유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 부담 없이 발표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,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.

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,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. 동아리 중 오차대 밴드부에 가입했는데, 부원들과 함께 라이브 및 회식 등을 하며 일본 대학의 과외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시기상 아쉽게 합숙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,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운 동아리 생활을 했습니다. 이외에도 한 학기 간 한국어카페를 담당해 한국문화 및 한국어를 알려주는 활동을 했는데,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인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.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가부키교실 및 다도교실에도 참여했으며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.

주말 및 휴일을 활용해 칸사이, 오키나와 등 일본 여행을 했습니다. 단풍 기간에 칸사이에 방문해, 교토 라이트업 행사를 구경하고 고베의 야경도 보았습니다. 칸사이의 명물인 551 호라이(만두)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. 골든위크 기간엔 오키나와에 놀러 가 국제거리, 아메리칸빌리지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. 스테이크, 고야참푸루, 타코라이스 등 맛있는 요리가 많아 좋았습니다. 이외에도 일본인 친구들과 요코하마 차이나타운, 산리오 퓨로랜드 등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. 유학생 친구들과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나 학교 축제에 놀러 가는 등 다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.

마지막으로, 일본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호게츠 지도교수님과
옆에서 제 유학 생활을 도와준 튜터 아이나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교환학생
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신 하기와라 교수님, 국제과 담당자분들, 덕분에 무사히
유학할 수 있었습니다, 감사합니다. 고민이 있었을 때 상담에 응해주셨던 왕 교수님
정말 감사합니다. 이외에도 수업 수강 메일을 보냈을 때 흔쾌히 허가해 주신 각 과목
교수님, 저의 유학 생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